

Dream Big to Achieve Big? Differential Effect of Students' Educational Aspira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Immigrant Background*

Lee, Sae Rom

(Hanyang University)

Ham, Seung Hwan[†]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educational aspira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compared to their native peers. Using data from the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urvey 2017, the academic achievement of 1,450 school children in Seoul and Gyeonggi was analyzed. The result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al aspir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supporting the popular 'meritocratic' notion of student success. However, this positive association was much weaker for students of immigrant backgrounds, in comparison to their native peers. This pattern was indicative of the uneven 'opportunity structure' in which immigrant-background students encounter less opportunities to translate aspirations into achievement. Overall,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micro-level interventions for immigrant-background minority students need to be complemented by macro-level efforts to reduce systemic exclusions in the educational ecology.

Key words: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aspirations; student with immigrant background; meritocracy; opportunity structure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rom the Korean government (NRF-2017S1A3A2065967).

[†] Corresponding author: Ham, Seung Hwan (College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eongdong-gu, 04763, Seoul, South Korea; hamseunghwan@gmail.com)

청소년이여, 교육포부를 키워라?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능력주의' 가설과 '기회구조' 가설 비교*

이새롬(한양대학교, 박사과정)

함승환(한양대학교, 부교수)†

< 요약 >

이 연구는 학생의 교육포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 1,4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 개인의 포부와 노력을 강조하는 '능력주의' 시각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도 간의 이러한 정적 관계는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비해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덜 뚜렷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속한 집단 간 '기회구조'의 차이에 주목하는 대안적 관점에 설득력을 더한다. 이주배경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회구조로 인해 개인의 교육포부가 크더라도 그것이 높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인 중심적 접근법뿐 아니라 교육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학업성취도, 교육포부, 다문화학생, 능력주의, 기회구조

* 이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됨(NRF-2017S1A3A2065967).

† 교신저자: 함승환(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hamseunghwan@gmail.com)

I. 서론

한국사회에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들의 교육적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¹⁾ 이러한 노력은 일부 법률로 강제될 만큼 중요한 공공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 제2항)할 책임이 있다.²⁾ 이주배경 학생의 경우 비이주배경 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적 취약성을 지니며, 이러한 교육적 취약성이 학업성취도 격차로 귀결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박윤경·이소연, 2009; 송효준·김두섭·함승환, 2018).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학업성취도는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Hanushek et al., 2015; Psacharopoulos & Patrinos, 2018). 따라서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 간 학업성취도 격차가 지속될 경우, 향후 한국사회의 건강한 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다양한 노력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들의 교육포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암묵적 가정에 기초한다.³⁾ 이러한 점

-
- 1) 한국 정부의 문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비판이 존재한다. 이 표현이 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 인식구조를 반영하고(김지혜, 2019), 다문화를 특정 집단에 한정시키고자 하며(류방란, 2013), 무분별한 관용구로서 사용되고 있다(한건수, 2014)는 의견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주체어의 하나로 '다문화학생'을 포함하면서도, 제목 및 원고 전반에 걸쳐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 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또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제10조 제2항). 이에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다문화교육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최영준, 2017).
 - 3) 교육부(2014)는 ‘청소년들이여, 포부를 갖고 도전하라!’는 제목의 10부작 다큐멘터리를 KBS와 함께 기획·방영한 바 있다. 본고의 제목은 이를 차용한 것이다.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 개선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정책의 명시적인 세부 초점이라기보다는 암묵적인 기본 방향성에 가깝다. 예컨대, 교육부(2020)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 ‘부적응’을 방지하고 ‘학업중단’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진로·정서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바탕으로 이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강조된다. 이는 학업지속과 진학을 강조하는 교육포부 향상이라는 방향성과 일관성을 갖는다. 현행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 역시 ‘학업중단을 감소’와 ‘취학을 향상’ 등을 이주배경 학생 지원책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삼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설정한 가운데, 특히 ‘진로 및 진학’ 관련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도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희망 교육수준)를 주요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근은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구사 수준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개연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결핍’이 학업의 ‘장애물’로 작동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이주배경 학생이 ‘결핍’에서 벗어나 ‘장애물’을 넘어 교육적 성공에 이르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정책은 이주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기초를 유지해 왔다(김기영·고은선, 2018; 이민경, 2010). 보상교육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포부 강화와 나아가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다.⁴⁾ 이 밖에, 일부 사업은 이주배경 학생이 지닌 특별한 문화적 ‘자원’에 집중하여 이를 교육적 성공을 위한 노력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나 글로벌 브릿지 사업 등은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사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역시 기본적으로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적 동기를 강화하고 교육포부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다.

요컨대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주배경 학생 개개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들이 큰 ‘포부’를 갖게 되면 한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실제로 이러한 믿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정도로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김예성·오승환, 2016; 박인옥, 2016).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주목하는 이러한 관점은 이주배경 학생의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이다. 일례로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언어교육을 통한 한국어 습득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교육제도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의 과제 수행을 도와주거나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 이수와 진로방향 설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학생이 지닌 포부의 효과를 강하게 전제하는 기존의 개입적 접근이 일정 부분 능력주의 신화(meritocratic myth)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비판적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손준중, 2004; 장은주, 2011).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높은 포부를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은 대부분 ‘노력하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집합적 믿음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개인이 속한 집단 간 존재하는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의 차이를 간과하도록 유도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체제 전반의 기회구조가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Gonzales, 2010; Nieto, 2017). 이러한 구조적 개선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이주배경 학생 개인의 교육포부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학생 개인의 포부와 그 효과를 강조하는 ‘능력주의’ 가정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포부는 학업성취도를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은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

4)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 프로그램과 숙제지도를 위한 방문교육,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도 유사한 예이다.

포부를 높이고자 하는 기존의 다문화교육 정책 기조와 일관된 것이다. 한편, 집단 간 '기회구조'의 차이에 주목하는 대안적 관점에 따르면, 학업성취도의 예측변수로서 교육포부의 설명력은 주류 집단인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보다 소수자 집단인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교육 장면에서 다양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교육형평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학생의 교육포부를 주요 변수로 포함하는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김경년·임정만·오석영, 2012; 변민경·김병수, 2014; 황재원, 2015).⁵⁾ 한편, 해외의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교육포부를 살펴본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Jung & Zhang, 2016; Mau, 1995; Rothon et al., 2011).⁶⁾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육포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포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양적 자료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가 학생의 학업적 성공에 대한 교육포부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 그 상관성을 거시적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교육포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성 패턴을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여 관찰함으로써 그 양상의 집단 간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시각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하나는 각 개인의 '포부'와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누구든 높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얻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개방적 '능력주의' 가설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처한 환경적 여건에 따라 사회경제적 '기회'가 달리 제공되는 이중적 '구조'의 작동 가능성에 주목하는 차별적 '기회구조' 가설이다. 아래에서 이들 두 가설을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5) 예외적으로, 이기종·곽수란(2016)은 교육포부가 교육성취로 연결되는 효과를 인문계와 전문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교육포부를 매개변수로 하여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로는 권승(2008)과 황정훈(2014) 등이 있다.

6) 일례로 Jung & Zhang(2016)의 분석에 따르면, 이주배경 학생들의 큰 교육포부가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관찰된다.

1. 개방적 ‘능력주의’ 가설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노력들은 많은 경우 이주배경 학생 각자가 더욱 높은 수준의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명시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채택되는데, 이는 그러한 가정이 일상적인 공적 생활 영역에서 흔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능력주의(meritocracy) 신념과 맞아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누구나 “노력한 만큼 이를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간명하고 직관적인 신념체계”(김지혜, 2019: 105)이다. 역사적으로 능력주의는 연고주의나 정실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대개 평등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념으로 여겨진다(권성민·정명선, 2012). 능력주의 신념은 “아무리 불우한 처지에 있더라도 열심히 능력을 계발하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보장”(장은주, 2011: 80)되므로 누구나 큰 포부와 근면한 노력을 통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믿음은 정부의 이주배경 학생 지원 노력에도 다양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편으로 이들의 사회문화적 ‘결핍’에 대해 ‘보상’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다문화적 ‘자산’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더 큰 ‘포부’를 갖도록 독려해 왔다. 이주배경 학생은 한국어 능력이나 주류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등에서 다소 부족함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이들도 한국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여성가족부, 2018).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과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한국어 교육이나 보충학습 기회 제공 등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을 돕고자 하는 시도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의 기저에는 이주배경 학생 누구라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 열심히 노력하면 학업적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능력주의적 가정이 자리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원자론적 개인을 상정하는 환원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하나의 집합적 신념이자 기능적 이념으로 작동한다.⁷⁾ 이는 능력주의에 기초한 정책이 나름의 실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방

7) 일례로 교육부는 ‘청소년들이여, 포부를 갖고 도전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여 방영함으로써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례를 통해 능력중심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4). 하지만

증된다. 실제로, 이주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적 지원들은 여러 학술연구에 의해서도 그 효과성이 지지되어 왔다.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을 통한 학습태도의 개선(남혜경·이미정, 2016; 장인실, 2016), 한국어 보충교육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모경환 외, 2015), 학습상담과 진로상담을 통한 교육포부 및 진로포부 강화(김예성·오승환, 2016; 조혜영·양계민, 2012)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이 지닌 결핍에 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높은 포부를 갖도록 격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주배경 학생 각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더 큰 꿈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능력주의 신념과 상통한다. 능력주의 신념이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의 경우, 이주배경 학생들이 그 신념에 더욱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비이주배경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포부를 나타내는 현상이 종종 목도되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이주민 역설'(immigrant paradox)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해석된다(Kao & Tienda, 1998; Krahn & Taylor, 2005; Salikutluk, 2016). 능력주의적 메시지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큰 꿈을 갖고 힘써 노력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평평한 경기장'(level playing field)이 그들에게도 마련되어 있다고 믿게 만든다(Frank, 2016/2018; Sandel, 2020).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나타나는 큰 포부의 근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인종·민족적 구성원이 다문화적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국의 맥락에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변되는 포부 장려의 문화는 능력주의 신념이 사회적 예토스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McCoy & Major, 2007; McNamee & Miller, 2004). 비록 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의 역사는 짧지만, 이주배경 학생들도 꿈을 크게 가지면 누구나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일종의 '코리아 드림'을 근저에 상정하고 있다. 요컨대, 능력주의 신념은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개인이 열망하고 노력하도록 고무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교육포부가 큰 이주배경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가설 1)**. 이 가설은 이주배경 학생도 높은 수준의 교육포부를 가질 경우 더 나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주류 정책의 기본적 기초와 맥을 같이 한다.

2. 차별적 '기회구조' 가설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배경 학생 한 명 한 명의 포부를 높이는

능력주의(또는 업적주의)는 한국사회의 학벌주의를 떠받드는 주요 이념적 장치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박휴용(2018)을 참고할 수 있다.

작업과 함께 이들을 둘러싼 포괄적 교육생태계를 다문화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오만석 외, 2018; 차윤경 외, 2019).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개인 환원주의적 성격은 성취의 구조적 측면을 간과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능력주의는 개인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간과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acLeod, 2008; McNamee & Miller, 2004). 개인 요인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는 “성공과 실패가 종종 개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Frank, 2016/2018: 13)을 감추어버리곤 한다. 그리고 개인이 경험한 성공이나 실패를 온전히 개인의 능력이나 무능력으로 귀인(attribution)하도록 유도한다(박남기, 2016; Young, 2001).

능력주의 사회는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누구나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신념체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한다. 하지만 주류사회 집단과 소수자 집단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작동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MacLeod, 2008; Ogbu, 1987). 이주배경 학생들이 지닌 사회적 소수집단으로서의 지위는 그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만약 상대적으로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서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면, 이는 능력주의 신념의 순기능이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주의가 집단별로 달리 작동한다면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차별(systemic discrimination)의 존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김지혜, 2019; Pincus, 1994).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도였던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McCoy & Major, 2007).⁸⁾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이 속한 집단 간 기회구조의 차이에 주목한다. 학생의 학업성취 기회구조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생태계 전반과 관련된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유의미한 학습경험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활동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층적 제도환경의 설계가 중요하다(차윤경 외, 2019). 현실의 교육생태계가 학생들에게 집단별로 서로 다른 기회구조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교육적 성취는 단순히 학생 개개인의 열망과 노력 등 개인 수준의 변수로만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Berliner, 2010; Gorski & Zenkov, 2014).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가능성은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해 학업성취 기회구조가 얼마나 개방적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학생 개인의 교육포부가 학업성취로 실현되는 정도에 있어서 학생이 속한 집단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회가 집단 간에 불균일하게 배분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8)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영국의 사회학자 Young(1958/2020)은 능력주의 사회의 디스토피아적인 면을 풍자적으로 묘사했지만, 이후 ‘능력주의’는 영국 노동당의 정치철학의 일부로 차용되는 등 긍정적 의미를 지닌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유리함(uneared advantage)이나 불리함(disadvantage)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집단에 따라 일정한 특권(privilege)이 실재함을 의미한다.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김지혜, 2019: 28)인 특권은 이를 누리는 집단에게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McIntosh(1989)의 주장에 따르면,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능력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권은 특정인들에게만 허용된 문을 뜻하기 때문에 특권의 실존은 개인의 삶이 개인이 오롯이 이루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을 역설하기 때문이다. Sandel(2020: 242) 역시 “능력주의 언어는 공적 담론을 지배했지만 그 악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능력주의의 무비판적 적용이 자칫 사회적 연대나 시민의식의 강화와 같은 민주주의적 공동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취해 온 능력주의 가정이 사회적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는가에 대한 성찰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만약 능력주의가 학생의 배경에 따라 달리 작용한다면, 학생의 포부 강화를 위한 접근 뿐 아니라, 교육생태계 전반의 기회구조 차이나 구조적 차별의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충분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는 능력주의 신념이 실제로 사회적 공정성과 통합을 도모하는 데 온전하게 타당한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주목한다. 그리고 한국사회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적 성공과 교육 형평성 제고라는 맥락에서 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집단별 기회구조의 차이에 주목하는 시각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교육포부가 그에 상응하는 학업성취도로 실현될 것이라는 능력주의 가정(가설 1)은 이주배경 집단과 비이주배경 집단에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간과한다. 이에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토한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육포부의 정적 효과는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비해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가설 2)**. 이 가설은 교육 장면에서 다양성을 포용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다문화 친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앞서 제기된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함승환 외, 2017). 이 자료는 수도권 각 기초지방자

치단체를 이주민 밀집도에 따라 상중하 지역으로 층화한 후 층별 동일 비율로 학교를 표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이 높은 확률로 표집되도록 설계·수집된 것이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데 용이한 조건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 46개 학교(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21개교)의 학생 1,700여명과 교사 470여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과 6학년 각 1개 학급을, 중학교의 경우 2학년 1개 학급을 학교별로 표집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 교사 약 10명으로부터 추가적인 학교배경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는 일부 변수에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를 제외한 1,450명의 학생이다.

2.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도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교육포부와 이주배경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이다. 먼저, 앞서 제기된 가설 1을 검토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변수에 대한 교육포부 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가설 2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포부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살펴본다. 이 밖에 통제변수로 학부모 교육수준, 학부모 교육적 관심, 가정 내 교육자원, 사교육 참여도, 한국어 친숙도, 초등학생, 여학생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각 변수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각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이다. 이 변수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개별 학생의 응답과 학교별 교사들의 응답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학생 대상 설문을 통해 각 학생은 자신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교사 대상 설문을 통해 학교별 약 10인의 교사가 해당 학교의 평균적 학업성취도가 전국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각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성취도 변수는 각 학생이 응답한 자신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 학업성취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을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의 평균값으로 보정한 후 Z 점수로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변수 구성 방식은 학생의 응답이 학교 내 학생 간 학업성취도 편차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의 응답이 학교 간 학업성취도 편차를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송효준 외, 2018). 이 변수는 학업성취도 추정치라는 점에서 실제의 학업성취도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치는 학생의 응답과 교사의 응답을 동시에 활용하여 학생 간 편차와 학교 간 편차를 모두 반영한 변수라는 점에서 학생의 자기보고 인식에만

기초한 접근의 한계를 일부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국내 이주민 인구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의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동시에 포함하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유용성을 지닌다.⁹⁾

나. 주요 독립변수

교육포부: 학생의 희망교육수준을 나타낸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교육포부는 '학생이 달성하고자 희망하는 교육정도'로 정의되며, 주로 희망교육수준으로 측정된다(김예성·오승환, 2016; 윤홍주, 2018; Wilson & Wilson, 1992). 이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 자료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나요?'에 대한 학생의 응답을 포함한다. 따라서 내용적으로도 학생의 교육포부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타당성을 지닌다. 이 변수는 중학교 졸업(=1)부터 대학원 졸업(=4)까지의 범위를 가지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서열변수이나 편의상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¹⁰⁾

이주배경: 학생이 이주배경을 가졌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부모 또는 성인 보호자 중 적어도 한 명이 해외 출생인 경우 해당 학생은 이주배경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주배경 학생을 1로, 비이주배경 학생을 0으로 코딩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주배경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 경향성을 보고한 바 있다(오성배·김성식, 2018; 윤민중·강충서, 2019).

교육포부×이주배경: 교육포부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이다. 학생의 교육포부 변수와 이주배경 변수 각각을 평균중심화한 후 둘을 곱하였다. 이 상호작용항은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기회구조' 가설(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육포부의 정적 효과는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비해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을 검토하기 위해 회귀 모형에 투입되었다.

다.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대안적인 설명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일련의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였다. 가정 내 사회문화적 자본이 학생의 학업성취의 핵심 영향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재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 교육수준, 학부모 교육적 관심, 가정 내 교육자원의 변수를 통해 가정 내 사회문화적 자본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교육 참여도 변수를,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에서 한국어의 중요

9)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성취도 변수가 다른 연구의 학업성취도 변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도 자료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예컨대 부산교육중단연구를 활용하여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성취도 차이를 분석한 윤민중·강충서(2019)에 따르면, 두 집단 간 격차는 세 과목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며 그 차이는 약 0.4~0.6 표준편차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패턴(표 2) 과도 유사하다.

10) 교육포부를 희망교육연한(중학교 졸업=9, 고등학교 졸업=12, 대학교 졸업=16, 대학원 졸업=18)으로 변환해서 분석해도 분석 결과의 주요 패턴에 차이가 없었다.

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친숙도 변수를 추가적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량

	<i>n</i>	Mean	<i>SD</i>	Min.	Max.
학업성취도	1,450	0.00	1.00	-2.96	2.81
교육포부	1,450	3.06	0.61	1.00	4.00
이주배경(vs. 비이주배경)*	1,450	0.12	...	0.00	1.00
교육포부×이주배경	1,450	0.00	0.21	-1.81	0.83
학부모 교육수준	1,450	4.82	0.71	1.00	6.00
학부모 교육적 관심	1,450	3.40	0.70	1.00	4.00
가정 내 교육자원	1,450	4.33	1.48	0.00	6.00
사교육 참여도	1,450	1.65	1.15	0.00	3.00
한국어 친숙도	1,450	2.87	0.50	0.00	3.00
초등학생(vs. 중학생)*	1,450	0.61	...	0.00	1.00
여학생(vs. 남학생)*	1,450	0.46	...	0.00	1.00

주: 별표(*)된 변수는 더미변수이므로 평균은 비율로 해석해야 함.

학부모 교육수준: 부와 모의 최종학력 중에서 더 높은 교육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학교를 다니지 않음(=1)부터 대학원 졸업(=6)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학부모 교육적 관심: 부모가 학교 공부를 중요시하는 정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나타낸다. 이 변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가정 내 교육자원: 학생 본인의 책상, 컴퓨터, 공부방 등 6개 교육자원 항목 중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값이 클수록 가정 내 교육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교육 참여도: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과목 중 몇 과목에서 학원이나 과외 등의 형태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값이 클수록 학생의 사교육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친숙도: 학생이 '집에 있을 때', '동네에 있을 때', '친구와 이야기 할 때'의 상황 가운데 몇 가지 상황에서 한국어가 주된 사용 언어인지를 나타낸다. 값이 클수록 학생의 한국어 친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초등학생: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초등학생일 경우 1, 중학생일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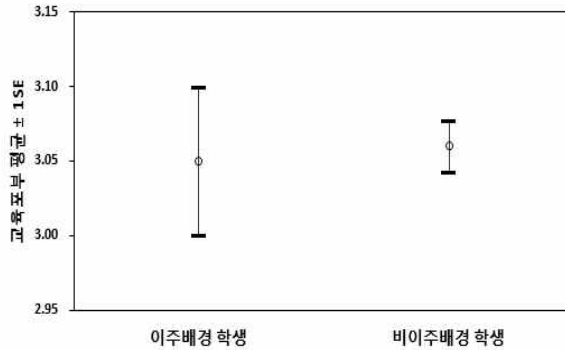
여학생: 학생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여학생일 경우 1, 남학생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1>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전체 분석대상 학생의 교육포부 평균은 3.06으로 학생들은 대체로 대학교 졸업(=3)을 최종학력으로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자료 내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은 전체 중 12%로 전국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 비율(2.49%)에 비해 높다. 이는 앞서 자료에 대한 기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주민 밀집도가 높은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이 높은 확률로 표집되도록 의도적으로 표본이 설계된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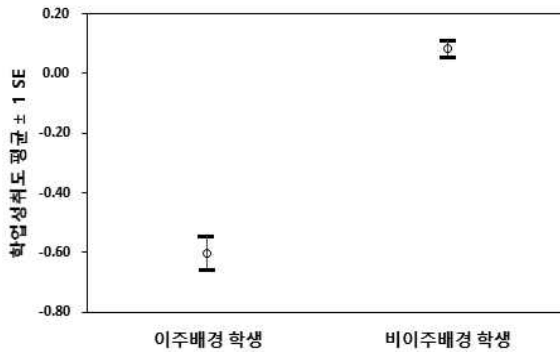
IV.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예비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교육포부 수준을 비교한 [그림 1]을 살펴보면, 이주배경 학생 집단과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 간에 유의한 교육포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보이는 교육에의 강한 의지 및 긍정적인 태도로 설명되는 '이주민 역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반면 두 집단 간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그림 2]는 이주배경 학생 집단과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 간에 상당한 성취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t=-8.77, df=1,448, p<0.001$). 집단별로 교육포부 변수와 학업성취도 변수 간 상관성을 도출한 결과, 이주배경 학생 집단은 비교적 낮은 상관성($r=0.11$)을 보인 반면에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r=0.30$)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의 양상과 종합해보면, 이주배경 학생 집단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포부가 그에 상응하는 학업성취도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¹¹⁾

11) 이러한 패턴은 조혜영·양계민(2012)이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중국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 면에서 높은 포부를 지니는 반면, 이들의 욕구 실현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중도입국 청소년은 학교적응 면에서 특히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포부가 낮지 않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교육포부 비교



[그림 2]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비교

이 연구에서는 집단별로 학생의 교육포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교육포부와 이주배경 및 이 둘의 상호작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모형 I),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통제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후에 결과를 다시 검토하였다(모형 II).

먼저, 통제변수를 투입하기 전인 모형 I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교육포부가 1.0 상승하면 학업성취도는 0.450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준화 회귀계수로 변환하면, 교육포부가 1 표준편차 커질 때마다 학업성취도는 0.274 표준편차만큼 높아지는 패턴이다.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도 간의 분명한 정적 상관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는 가설 1과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생의 이주배경 변수 역시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비이주배경 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0.683만큼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모형 I). 학업성취도 변수가 표준편차 1.0을 갖는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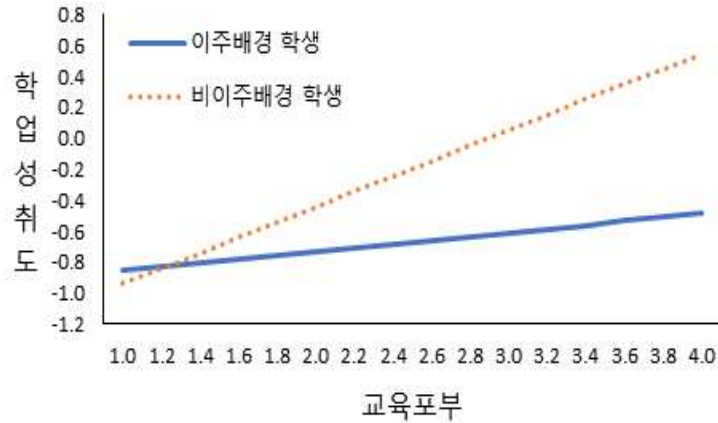
화된 척도의 변수임을 고려하면, 이주배경 학생 집단과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 간 학력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교육포부와 이주배경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도 간 관계의 크기가 다를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한다.

<표 2>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I		모형 II	
	b	β	b	β
교육포부	0.450 ***	0.274	0.293 ***	0.178
이주배경(비이주배경=0)	-0.683 ***	-0.223	-0.330 ***	-0.108
교육포부 × 이주배경	-0.373 ***	-0.080	-0.324 **	-0.069
학부모 교육수준			0.247 ***	0.175
학부모 교육적 관심			0.134 ***	0.094
가정 내 교육자원			0.160 ***	0.236
사교육 참여도			0.101 ***	0.116
한국어 친숙도			0.074	0.037
초등학생(중학생=0)			-0.128 **	-0.062
여학생(남학생=0)			0.061	0.030
절편	-1.295 ***		-3.530 ***	
사례수	1,450		1,450	
R ²	0.129		0.268	

주: * $p \leq 0.05$, ** $p \leq 0.01$, *** $p \leq 0.001$.

[그림 3]은 분석의 주요 결과를 간명하게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에서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가설 1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도 간 상관성을 보여주는 회귀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의 경우 정적으로 가파른 반면에 이주배경 학생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가설 2를 지지하는 뚜렷한 결과이자 가설 1의 타당성이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련의 통계변수들을 투입한 모형 II에서도 교육포부와 이주배경 간 상호작용 효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가설 2에 신빙성을 더한다.



[그림 3]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교육포부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비교
(<표 2>의 모형 1에 근거)

V. 결론 및 논의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적 성공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 중 상당 부분은 이주배경 학생들의 ‘결핍된’ 교육포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묵시적 가정에 기초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포부가 실제 학업성취도로 이어지는 양상을 비이주배경 학생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포부가 큰 학생일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개인의 포부와 노력을 통한 성공을 강조하는 ‘능력주의’ 관점에 부합한다. 그러나 교육포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의 양상을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에 따라 집단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능력주의’가 집단에 따라 달리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비해 이주배경 학생 집단의 경우, 높은 수준의 교육포부가 그에 상응하는 높은 학업성취도로 연결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이 속한 집단 간에 ‘기회구조’의 개방성 정도가 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학생이 속한 집단에 따라 교육포부가 학업성취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능력주의적 믿음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집단이 있는 반면, 단지 ‘신화’로서 기능하는 집단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에는 주로 개인으로 환원된 이주배경 학생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정책적 개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 연구의 결과는 개개인의 포부를 높이는 전략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존의 개인중심적 정책 기조를 보완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교육

적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는 학생 개개인이 포부를 고양하고 실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동등한 희망의 메시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능력주의적 신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기회를 상정하므로, 이러한 기본 가정이 탄탄히 성립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체제 전반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은 단위 학교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학교를 재점검하고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기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학교의 문화와 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수반한다(Ham, Kim, & Lee, 2020; Khalifa, 2018). 교육과정이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관점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Banks, 2014/2016; Bennett, 2019)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학습의 유용한 자원으로서 포용하는 교수 전략을 사용하며(Gay, 2002; Ladson-Billings, 1995) 문화적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평가 기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등(Nortvedt et al., 2020; Padilla & Borsato, 2008) 다각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의 개혁 과정은 교육환경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이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다.¹²⁾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취약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더욱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집단 간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존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해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May & Sleeter, 2010/2014; Nieto, 2017). 교육체제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 집단에 따른 유리함이나 불리함, 명시적이지 않은 특권 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의식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의 근거를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다문화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포용을 강조하는 '문화적' 접근뿐만 아니라 교육생태계 전반의 기회구조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체제적' 접근이 함께 요구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 단지 문화다양성 관리 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통합 정책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³⁾ 다문화정책의 틀 내에서 공교육이

12) 학교의 다문화 친화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국 등 해외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이수정·김승정·임희진, 2018)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소수의 국내 연구로는 교원의 다문화정책 지향성을 살펴본 이연조·정제영(2019), 학교장의 문화감응적 리더십 효과를 분석한 이은지·함승환(2018)과 송효준·김지현·함승환(2019) 등이 있다.

13) 이는 다소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Charles Taylor와 Jürgen Habermas 간의 견해차를 참고할 수 있다. Taylor(1994/2020)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의

담당해야 할 일차적 역할은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적 성공을 실질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담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여러 주체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 프로그램 간의 불필요한 중복성을 줄이고 개입의 효율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율과 재검토 노력이 요구된다.¹⁴⁾ 또한 개입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질적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교한 프로그램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기초한 지속적 환류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의도와 실제 이행 간에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양적 자료에 기초한 계량적 정책평가 및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도의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의도와 이행 간의 간극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관련 정책이 제도화된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의 맥락에서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의도와 그 굴절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포부가 학업성취도에 대해 갖는 정적 효과의 크기가 학생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주배경 학생 집단이 비이주배경 학생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회구조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교육포부를 학생의 ‘동기’ 차원의 변수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동기가 어떠한 ‘행동’ 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러한 동기와 행동 패턴이 어떠한 교육생태계 맥락과 교수학습 역동 속에서 촉진되거나 제약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향후 이러한 방향의 추가 분석이 다양하게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의 개선 및 관련 정책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적실성 있는 실천적 함의를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도구인 반면, Habermas(1994/2020)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은 ‘소통’의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사회구성원 간 ‘공동의 해석지평’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통합 장치이다.

14) 이러한 비판적 요구와 관련하여 실증적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예컨대, 신혜진(2018)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정책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보여준다. 또한 양경은·함승환(2020)은 다문화정책이 복지정책 등 다른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적 성공에 의도치 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실증적 분석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4. 8. 18). 청소년들이여, 포부를 갖고 도전하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601> 에서 2020. 10. 21 인출.
-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14. 8. 18). Dream big and step forward!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 October 21, 2020, from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601>
- 교육부 (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세종: 교육부.
-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0). *Policy pla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Sejong, South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권성민, 정명선 (2012). 실력주의의 이해와 비판적 고찰: 교육, 선발 및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0**, 439-468.
- (Translated in English) Kwon, S.-M., & Chung, M.-S. (2012). Meritocracy, its explication and critical review: Centered on education, screening, and political context. *The Journal of Humanities*, **30**, 439-468.
- 권승 (2008). 소득, 포부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매개변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2), 23-42.
- (Translated in English) Kwon, S.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income, aspiration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Focusing on verification of the mediator.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4**(2), 23-42.
- 김경년, 임정만, 오석영 (2012). 사회적 제약이 시간지향성(time perspective)을 매개로 교육포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0**(4), 133-158.
- (Translated in English) Kim, K.-N., Lim, J.-M., & Oh, S.-Y. (2012). Influence of social constraints on educational aspirations via time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4), 133-158.
-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405-425.
- (Translated in English) Kim, K.-Y., & Ko, E.-S. (2018).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factors of immigrant background youth about support policy in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1), 405-425.
- 김예성, 오승환 (2016).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75-98.

(Translated in English) Kim, Y.-S., & Oh, S.-H. (201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aspirations of the youth from the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Youth Welfare, 18*(3), 75-98.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파주: 창비.

(Translated in English) Kim, J.-H. (2019). *Innocent participant in discrimination*. Paju: Changbi.

남혜경, 이미정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멘토링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5(1), 47-66.

(Translated in English) Nam, H.-K., & Lee, M.-J. (2016). The mentee experience of the youth in the mentoring program.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5*(1), 47-66.

류방란 (2013). 다문화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의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6(4), 131-149.

(Translated in English) Ryu, B. (2013). A reflect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d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6*(4), 131-149.

모경환, 이재분, 홍종명, 임정수 (2015).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언어교육 강화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8(3), 197-226.

(Translated in English) Mo, K.-H., Lee, J.-B., Hong, J. M., & Lim, J. S. (2015).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language education policy for linguistic minority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8*(3), 197-226.

박남기 (2016). 실력주의사회에 대한 신화 해체. **교육학연구**, 54(3), 63-95.

(Translated in English) Park, N. (2016). Dismantling myths about the meritocr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3), 63-95.

박윤경, 이소연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Translated in English) Park, Y.-K., & Lee, S.-Y. (2009). Survey on the school live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ergroup differences and intragroup diversit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1), 41-71.

박인옥 (2016). 다문화 초등학교 멘토링의 슈퍼비전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2(4), 247-269.

(Translated in English) Park, I. (2016). Case study on supervision of mentoring for multicultural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4), 247-269.

박휴용 (2018). 학력 개념의 세 층위를 통해 분석한 학벌주의와 교육열. **교육사상연구**, 32(3),

97-128.

(Translated in English) Park, H.-Y. (2018). Credentialism and education fever analyzed by three layers of scholastic ability.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32(3), 97-128.

변민경, 김병수 (2014). 교육포부 형성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1(30), 237-278.

(Translated in English) Byun, M., & Kim, B.-S. (2014). A qualitative study on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aspir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1(30), 237-278.

손준중 (2004).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한국교육학연구*, 10(2), 135-153.

(Translated in English) Son, J.-J. (2004). Re-consideration on meritocracy as educational logic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0(2), 135-153.

송효준, 김두섭, 함승환 (2018). 지역사회 이주민 밀집도가 이주배경 학생 및 비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1(1), 133-150.

(Translated in English) Song, H., Kim, D.-S., & Ham, S.-H. (2018). Effects of immigrant residential concentration on student performance: Native versus immigrant pupil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1), 133-150.

송효준, 김지현, 함승환 (2019). 학교장의 문화감응적 교수리더십과 교사의 다문화적 교수효능감: 전문적 협력문화의 매개효과. *교육행정학연구*, 37(3), 167-192.

(Translated in English) Song, H., Kim, J., & Ham, S.-H. (2019). The effect of principals' culturally responsive leadership on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 multicultural setting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7(3), 167-192.

신혜진 (2018).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1), 169-193.

(Translated in English) Shin, H. (2018). Analyzing duplication of the policy projects supporting multicultural students: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1), 169-193.

양경은, 함승환 (2020). 다문화정책은 이주아동의 사회통합에 늘 효과적인가?: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고려한 비교사회정책적 재분석. *한국사회정책*, 27(2), 71-92.

(Translated in English) Yang, K.-E., & Ham, S.-H. (2020). Multiculturalism may work, but not always: A comparative social policy perspective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immigrants. *Korea Social Policy Review*, 27(2), 71-92.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The 3rd basic plan*

-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2018-2022)*.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오만석, 이길상, 정미량, 모경환, 차윤경, 주미경, 함승환 (2018).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Translated in English) Oh, M. S., Lee, G., Jeong, M.-R., Mo, K.-H., Cha, Y.-K., Ju, M.-K., & Ham, S.-H. (2018).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global era*.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오성배, 김성식 (2018).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 실태와 영향 요인 탐색. **교육논총**, 38(2), 215-234.
- (Translated in English) Oh, S., & Kim, S.-S. (2018).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urnal of Education*, 38(2), 215-234.
- 윤민중, 강충서 (2019). 다문화 학생의 교육 불평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2(4), 57-77.
- (Translated in English) Youn, M., & Kang, C.-S. (2019). Educational inequality of immigrant students: Examining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on achievement gap between immigrant and native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2(4), 57-77.
- 윤홍주 (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논총**, 38(2), 133-152.
- (Translated in English) Yun, H.-J. (2018). Factors on educational aspirations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Education*, 38(2), 133-152.
- 이기중,곽수란 (2016). 직업포부와 교육포부가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9(1), 25-48.
- (Translated in English) Rhee, K.-J., & Kwak, S.-R. (2016). The effects of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n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9(1), 25-48.
- 이민경 (2010).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전개과정과 담론 분석: 교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정책(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155-176.
- (Translated in English) Lee, M.-K. (2010). Analysis of the discourse o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2006-2009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7(2), 155-176.
- 이수정, 김승정, 임희진 (2018). 미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동향 분석: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발표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5), 271-292.

- (Translated in English) Lee, S., Kim, S., & Lim, H. (2018). Analysis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trend in US: Focusing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000-2017).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5), 271-292.
- 이언조, 정제영 (2019). 다문화 정책지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6(2), 57-76.
- (Translated in English) Lee, U.-J., & Chung, J. Y. (2019).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policy orientation of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in Seoul.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6(2), 57-76.
- 이은지, 함승환 (2018). 이주배경 학생 밀집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 학교장의 문화감응적 교수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35(3), 127-152.
- (Translated in English) Lee, E., & Ham, S.-H. (2018).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rincipal's culturally responsive leadership on teachers' perceived challenges in culturally diverse schools.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5(3), 127-152.
- 장은주 (2011). 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민주주의적 정의'를 모색하며. *사회와 철학*, 21, 71-106.
- (Translated in English) Chang, E.-J. (2011). The rise of the meritocracy in Korean society and its education problem: In searching for the democratic justice. *Korean Society for Social Philosophy*, 21, 71-106.
- 장인실 (2016). 1:1 가정 방문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및 자기주도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평화*, 10(3), 127-148.
- (Translated in English) Chang, I. (2016). Study on the effects of 1:1 visiting education for academic abi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aptitude of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e & Peace*, 10(3), 127-148.
- 조혜영, 양계민 (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Translated in English) Jo, H.-Y., & Yang, K.-M. (2012). An exploring study on the educational situation and career expectation of youth migrants in Korea.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141-168.
- 차윤경, 구자원, 김선아, 김시정, 문종은, 민희자 ... 황세영 (2019). **교사를 위한 융복합교육론: 학교개혁을 이끄는 교사 되기**. 서울: 학지사.
- (Translated in English) Cha, Y.-K., Koo, J.-W., Kim, S.-A., Kim, S.-J., Moon, J.-E., Min, H.-J., ... Hwang, S. (2019). *Yungbokhap education and school reform: Theory and practice for teachers*. Seoul: Hakjisa.

- 최영준 (2017).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법률 논의. *원광법학*, 33(4), 305-325.
(Translated in English) Choi, Y.-J. (2017). Discussion of education laws for multicultural students in Korea. *Wonkwang Legal Research Institute*, 33(4), 305-325.
- 한건수 (2014).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윤인진, 황정미 편,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pp. 33-61). 서울: 아연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Han, G. S. (2014). Multiculturephobia and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In I.-J. Yoon & J.-M. Hwang (Eds.), *Reflections on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its prospects* (pp. 33-61). Seoul: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 함승환, 차윤경, 양경은, 김부경, 송효준, 이은지 (2017).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세종: 교육부.
(Translated in English) Ham, S.-H., Cha, Y.-K., Yang, K.-E., Kim, B.-K., Song, H., & Lee, E. (2017). *Education in ethno-cultural communities and policy suggestions*. Sejong, South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황재원 (2015). 청소년의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6(1), 345-365.
(Translated in English) Hwang, J.-W. (2015).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during adolescence.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1), 345-365.
- 황정훈 (2014). 후기 청소년의 문화자본, 직업포부, 교육포부,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3), 375-394.
(Translated in English) Hwang, J.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capital, the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aspiration and vocational aspiration of late adolescence in colleg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3), 375-394.
- Banks, J. A. (2016). *다문화교육 입문*[*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제5판,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서출판 2014)
- Bennett, C. I. (2019).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th ed.). New York, NY: Pearson.
- Berliner, D. C. (2010). Are teachers responsible for low achievement by poor students? *Kappa Delta Pi Record*, 46(1), 18-21.
- Frank, R. H. (2018).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Success and luck: Good fortune and the myth of meritocracy*]. (정태영 역). 파주: 글항아리. (원서출판 2016)

- Gay (2002). Preparing for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2), 106-116.
- Gonzales, R. G. (2010). On the wrong side of the tracks: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school structure and social capital in the educational pursuits of undocumented immigrant student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85(4), 469-485.
- Gorski, P. C., & Zenkov, K. (Eds.). (2014). *The big lies of school reform: Finding better solutions for the future of public education*. New York, NY: Routledge.
- Habermas, J. (2020).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인정투쟁[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s]. In A. Gutmann (Ed.),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이상형, 이광석 역, pp. 146-193). 서울: 하누리. (원서출판 1994)
- Ham, S.-H., Kim, J., & Lee, S. (2020). Which schools are in greater need of culturally responsive leaders? A pedagogical uncertainty management perspective.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12(4), 250-266.
- Hanushek, E. A., Schwerdt, G., Wiederhold, S., & Woessmann, L. (2015). Returns to skills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PIAAC. *European Economic Review*, 73, 103-130.
- Jung, E., & Zhang, Y. (2016). Parental involvement, children's aspirations, and achievement in new immigrant famil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9(4), 333-350.
- Kao, G. & Tienda, M. (1998). Educational aspirations of minority youth.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6(3), 349-384.
- Khalifa, M. A. (2018). *Culturally responsive school leadership*. Cambridge, MA: Harvard Education Press.
- Krahn, H., & Taylor, A. (2005). Resilient teenagers: Explaining the high educational aspirations of visible-minority youth in Canada.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6(3/4), 405-434.
- Ladson-Billings, G. (1995). Toward a theory of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merican Research Journal*, 32(3), 465-491.
- MacLeod, J. (2008). *Ain't no makin' it: Aspirations and attainment in a low-income neighborhood* (3r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 May, S., & Sleeter, C. E. (2014). *비판적 다문화주의 이론과 실제* [*Critical multiculturalism: Theory and praxis*]. (부향숙, 김경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10)
- Mau, W.-C. (1995). Educational plan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 racial and 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 73(5), 518-526.
- McCoy, S. K., & Major, B. (2007). Priming meritocracy and the psychological justification of inequ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341-351.
- McIntosh, P. (1989). White privilege: Unpacking the invisible knapsack. *Peace & Freedom, July/August*, 10-12.
- McNamee, S. J., & Miller, R. K. Jr. (2004). The meritocracy myth. *Sociation Today, 21*. Retrieved October 18, 2020, from <http://www.ncsociology.org/sociationtoday>
- Nieto, S. (2017). Re-imagining multicultural education: New visions, new possibilities.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9*(1), 1-10.
- Nortvedt, G. A., Wiese, E., Brown, M., Burns, D., McNamara, G., O'Hara, J., ... Taneri, P. O. (2020). Aiding culturally responsive assessment in schools in a globalising world. *Educational Assessment, 32*(1), 5-27.
- Ogbu, J. U. (1987). Variability in minority school performance: A problem in search of an explanation.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18*(4), 312-334.
- Padilla, A. M., & Borsato, G. N. (2008). Issues in culturally appropriate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In L. A. Suzuki & J. G. Ponterotto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assessment: Clinical,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pp. 5-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incus, F. L. (1994). From individual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F. L. Pincus, & H. J. Ehrlich (Eds.), *Race and ethnic conflict* (pp. 82-87). Boulder, CO: Westview.
- Psacharopoulos, G., & Patrinos, H. A. (2018). Returns to investment in education: A decennial review of the global literature. *Education Economics, 26*(5), 445-458.
- Rothon, C., Arephin, M., Klineberg, E., Cattell, V., & Stansfeld, S. (2011). Structural and socio-psychological influences on adolescent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subsequent academic achievemen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2), 209-231.
- Salikutluk, Z. (2016). Why do immigrant students aim high? Explaining the aspiration-achievement paradox of immigrants in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2*(5), 581-592.
- Sandel, M. (2020).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서울: 와이즈베리. (원서출판 2020)
- Taylor, C. (2020).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 Gutmann (Ed.),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이상형, 이광석 역, pp. 47-109). 서울: 하누리. (원서출판 1994)

- Wilson, P. M., & Wilson, J. R. (1992). Environm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educational aspirations: A logistic transform model. *Youth & Society, 24*(1), 52-70.
- Young, M. (2020). **능력주의**[*The rise of the meritocracy*]. (유강은 역). 서울: 이매진. (원서출판 1958)
- Young, M. (2001, June 29). Down with meritocracy. *The Guardian*. Retrieved October 8, 2020, from <https://www.theguardian.com>

- 논문 접수 2020년 12월 31일 / 수정본 접수 2021년 1월 30일 / 게재 승인 2021년 2월 10일
- 이새롬: 코넬대학교에서 아시아학 학사학위를 취득함.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 졸업 후 현재 같은 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임. 다문화교육 및 교육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함승환: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학(박사)을 공부함.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다문화교육학과, 러닝사이언스학과, 평생학습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교육정책의 제도화와 그 효과에 주된 관심이 있음.